

## 한국 탈의 造形美를 활용한 호텔 유니폼 디자인 研究

주 성 희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 A Study on the Hotel Uniform Design Applying Visual Image of the Traditional Korean Mask

Sung-Hee Joo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13. 6. 28. 접수; 2013. 7. 30. 수정; 2013. 8. 5. 채택)

#### Abstract

Amo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TalChum(mask dance) which bears our unique cultural emotion, is about wearing a Tal(Korean mask) and dancing, which express our ethnic feeling. The ethnic feeling was expressed into silhouette of hotel uniform which sightseers at home and abroad most frequently visit. This would be the best and the fastest way to show and deliver ethnic feeling of Korea. Fashion design of an uniform would be the best way to express group's unification and attach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uniforms, in order to satisfy the property of function, aesthetic points, symbolism to inhere and to differentiate the group from others by using plastic and creative design.

This study was meant to induce people to get near to characteristic of Korean culture, using hotel uniform design. Mask's plastic beauty of characteristic Chosun dynasty and express vividly Tal's image with Korean traditional reality was applied on hotel uniform design. By doing so, visitors can come back to the hotel with longtime memory of Korea. The characteristics and the humorous symbolism of Tal were designed and applied to uniform design on collar, bodice, pocket, and sleeves.

*Key Words:* TalChum(탈춤), Tal(탈), Function(기능성), Aesthetic points(심미성), Symbolism(상징성)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인간은 의복과 외모관리를 통해 우월함으로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고자 하고, 또 과시하고자 한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는 패션이 하나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주며, 그 집단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동시에 자기직장이 다른 직장에

비해 차별화되어 우월하게 비춰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유니폼 디자인에 따라 한 집단의 결속력과 소속감을 증대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유니폼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디자인에 의해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더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아직도 유니폼 디자인이 획일화 되어 있고 그 집단의 표현과 상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거의 색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유

---

Corresponding author ; Sung-Hee Joo

Tel. +82-10-2001-2574, Fax. +82-2-745-2583

E-mail : csh@hansung.ac.kr

※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성희의 200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니폼 디자인의 차별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호텔은 그 집단의 고객에 의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이니 만큼 유니폼디자인이 고객에게 나타내고자함이 디자인에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 전통의 얼이 들어 있는 조선시대 탈의 조형적 특성에서 찾아내어 호텔에 나타내고자 하는 특성과 복합된 탈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 유니폼 디자인에 활용하여 그 호텔의 이미지에 한국의 전통적인 리얼리티를 현대화 시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를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에게 한결음 더 다가오게 만들고자 함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흥미를 느끼고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하여 매출증대에 일조를 할 뿐 아니라 유니폼 디자인으로 인해 그 호텔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북부, 중부, 남부 지방의 농촌이나 도시 탈놀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탈 중 5개를 선정하여 탈의 조형적 특성과 탈에 담겨진 상징적 해학을 표출시켜 호텔 유니폼 디자인으로 창출하였다.

그 탈들에 담겨진 한국의 조형미를 추출하기 위해 한국 전통 탈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탈의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제 호텔 유니폼 디자인에 적용하여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따라서 문헌조사, 조형미 분석, 작품제작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시키고자하며 그 환경을 특급호텔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호텔 종사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변형시켜 창출한 디자인은 작품기획, 일러스트레이션, 도식화, 패턴, 작업 지시서에 의해 5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 II. 韓國 탈의 이론적 배경

### 1. 용어 정의

면(假面)은 우리말로 「광대」, 「초라니」, 「탈」

또는 「탈바가지」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면(面), 탈(假面), 대면(大面), 면견(面見), 가두(假頭)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탈이란 용어로 단일화 되어 쓰이고 있고 이는 곧 탈을 뜻하고 있다. 그 중, 탈이란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거나 얼굴을 방호하기 위하여 쓰는 특이한 조형품(造形品) 또는 미술품으로 특정한 목적과 용도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이는 단지 얼굴을 가릴 뿐만 아니라 본래의 얼굴과는 다른 인물이나 동물, 또는 초자연적 존재, 즉 신(神)을 표현하는 가장성(假裝性)을 갖는다.

이러한 탈은 그 구성요소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든 간에 은폐(隱蔽)와 신비화(神秘化)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상징(Symbol)과 표정(Expression)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환원된다(Bedouin, 1963).

한국 탈 중 탈놀음 탈의 가장자리에 베로 꿰매 붙인 「탈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탈을 쓸 때에 붙잡아 매게도 되어 있고, 후두부(後頭部)를 가리게도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탈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탈 좌우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굵은 노끈을 꿰어서 붙잡아 매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를 탈끈이라 한다.

한국 탈 자체로서의 협의(狹義)의 정의(定義)를 하고 있는 점은 지역적(地域的)으로와 시간적(時間的)으로 광범위(廣範圍)한 분포(分布)를 보이고 있는 탈이 얼굴뿐만 아니라 두상에 올려 놓기도 하여 신체(身體)의 부분(部分) 또는 거의 전부를 가려 가장(假裝)한 것에 비교(比較)될 때 현존(現存)하는 한국 탈로 미루어 보아서 가장성을 가지는 것은 공통된 것이지만 명확한 단정(斷定)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최만린, 1963).

### 2. 탈 및 탈놀음의 기원

탈의 가장 오랜 기능의 하나는 주술이며 오늘 까지도 이 기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있으며 원시예능이 예능이기 이전에 주술종교적(呪術宗教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탈은 먼저 신앙탈에서 출발하여 점차로 예능탈로 발달한 것 같

다. 그러므로 탈의 기원은 동서를 막론하고 원시민족의 사회까지 소급하여 논의된다. 원시 민속탈에서 주요한 동기이며 원인이 되는 것은 신앙이요 종교적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의 기초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이래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타일러(E. B. Tylor, 1832~1917)나 마렛트(R. R. Marett, 1866~1943)의 이론인 유령관(animism)(Primitive Culture, 1871)<sup>1)</sup>과 유생관(animatism)(이두현, 1979)<sup>2)</sup>, 그리고 주술의 본질에 관한 프레이저(J. G. Frazer, 1854~1941)의 이론인 「공감의 법칙(共感의 法則)」이나 「모방주술(模倣呪術)」과 「감염주술(感染呪術)」의 분류 등은 지금도 그것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바 탈에 관한 원시적 신앙의 이해에 그들의 설명을 수용할 수 있겠다(이두현, 1979).

타일러는 종교의 최소한의 정의를 영적 존재에 대한 신앙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영혼(soul)과 인간이외의 존재에 적용되었을 때 그것이 정령(spirit)이라고 하였다.

인류는 신석기 이래 농경과 목축사회로 들어오면서 삼라만상 속에서 영혼과 정령의 존재를 믿고, 그 영혼과 정령을 다시 선령과 악령으로 구분하여 모든 현상과 인간의 행, 불행이 이 선령과 악령과의 싸움과 교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악령을 이기거나 물리치고, 선령을 맞아 위무(慰撫)하기 위하여 주술의 힘을 빌었는데 이 주술의 하나로서 탈이 요구되었다(이두현, 1979). 이러한 주술적인 성격을 후기 구석기 시대의 동굴회화(洞窟繪畫)와 선각화(線刻畫)에 있어서 인간이 자연 그대로 표현된 예는 하나도 없고 수렵(狩獵), 무용(舞蹈)과 관련되어 탈을 쓴 주술사로 유출(流出)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의 생존을 위한 실용적 기술인 주술에서 탈은 필수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탈은 모든 제한에서 자유로우며 무엇이든지 상징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데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신(神)의 탈을 쓰면 그는 이미 인간 이상의 존재인 신(神)이 되고 망자(亡者)의 탈을 쓰

면 그는 죽음의 세계와의 매개자로서,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자이다. 인간이면서도 신이요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자라는 이 모순, 이것은 초인간적인 신뢰성이며, 탈이 갖는 주술성이다(이두현, 1979). 또 탈은 성(性)의 전환(轉換)을 가져오며 양성구유(兩性具有, androgyny)의 역할도 한다. 주술적이던 탈이 후세에 연극용으로 전용된 뒤에도 이와 같은 이중성 모순의 동시적 존재성은 지속되어, 탈놀이가 갖는 매력과 강력한 인상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신과 동격으로서의 가치를 찾고자 탈을 사용하였던 것이 차츰 예능(藝能)탈로 발전하면서 극중 인물의 특징 묘사로서 또는 그 시대 감정의 표출로서 탈놀음과 더불어 그 명맥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탈의 현대적 가치를 보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서, 그 조형적·심리적 형태로의 의의는 매우 크다(임혜경, 1983).

문헌상으로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탈 및 탈놀음은 삼국사기 잡지악조(雜志樂條)에 수록되어 전하는 최치원의 향악잡영(鄉樂雜詠) 시(詩) 5수(五首) 중 「월전(月顛)」, 「대면(大面)」, 「속독(束毒)」, 「산예(狻猊)」의 네 가지이다(최상수, 1984).

17C 조선조 숙종 때는 학자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僊說)과 사학자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 연극부에 의하면 월전은 이마의 둥근 것이 달걀 같은 것이고 조출한 선비들이 주석(酒席)에서 격김내기로 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희극(輕喜劇)이며, 대면은 금색 탈을 쓴 주술자가 사귀를 물리치는 종교성의 무용극이니 지금 서장(西藏)의 풍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요, 속독은 귀신 형용을 한 탈로 원방인(遠方人)이 왕화를 사모하여 떼 지어 와서 무악(舞樂)을 바치는 뜻을 나타내는 탈놀음이고 산예는 인도특유의 동물 의장무(擬裝舞)로써 서역과 동방의 각 국에 널리 유행하게 된 유명한 무악이다. 월전이니 속독이니 합은 그 기원지인 서역 어느 나라의 말의 사음(寫音)함일 것이다(최상수, 1984).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아 이 검무가 최치원 시

1) 유령관(animism) : ① 물활설(物活說) - 모든 자연물에는 마음과 뜻이 있다고 믿음.  
② 정령설(精靈說) - 사람, 물건의 활동이 정령의 힘에 의한다.

2) 유생관(animatism) : 자연물 자연 현상에는 생명과 의식이 있다고 하는 애니미즘 이전의 가장 원시적인 세계관.

대 이전부터 신라에 수입되어, 이미 내용으로나 형태가 향토화되어 일반적으로 향악이 되고 있었던 까닭이 아닐까 한다.

바가지나 종이는 비교적 후대에 생활용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대에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탈을 만드는 주재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무를 즐겨 다루던 고대에는 조각술이 뛰어난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조각술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탈들을 보면 고려조의 하회탈이나 병산탈이 조선조 이후의 탈들보다 한결 뛰어난 조각품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김수남, 임재해, 1988).

종이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제작된다.

첫째는 종이를 얼굴 모양으로 자르고 먹과 물감으로 그려서 얼굴에 쓸 수 있도록 한 종이탈이 있다.

둘째, 흙으로 탈의 모양을 양각으로 빚은 다음 그 위에 한지를 여러 차례 겹겹으로 발라서 말린 뒤에, 모형의 흙을 깨뜨려 내고 한지로 된 탈의 형상을 떠내는 경우이다. 이렇게 떠낸 종이탈에다가 눈, 코, 입 등을 뚫어내고 물감으로 채색하여 탈의 형상을 마무리한다.

셋째, 신문지, 마분지, 한지 등의 폐지를 물에 불렸다가 탈의 형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남사당패의 탈은 종이 찰흙으로 탈의 형상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다시 한지를 몇 겹 바르고 채색을 밝게 해서 탈의 표면이 매끈하고 색상도 밝다. 재질적 특성이 지닌 한계를 극복한 셈이

다(김수남, 임재해, 1988).

바가지를 이용해서 만든 탈을 보면 가락(駕洛)의 김해 오광대 탈과 통영 오광대 탈, 양주 별산대 탈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탈이 바가지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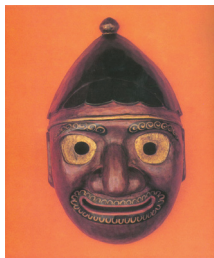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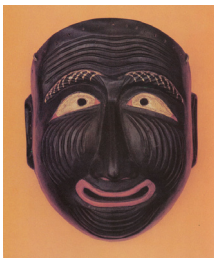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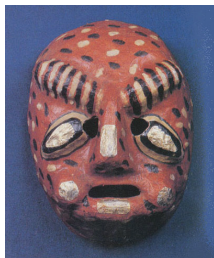
북부지방의 탈인 봉산 탈놀음(그림 1)과 강령 탈놀음(그림 2)은 남부지방의 탈과 달리 토형에 종이로 뜨는 한 가지 기법만으로 만들어졌으며,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비용도 적게 들었으나 사용기간이 짧았으며 세밀한 표현이 힘들었다(조동일, 1986).

봉산 취발이탈(그림 1)이나 강령 말뚝이탈(그림 2)처럼 대체로 눈, 코, 이마를 울퉁불퉁하게 돌출시켜 강조했기 때문에 굴곡이 심해서 그로 테스트스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붉은색 바탕에 흰색, 검정색, 금색의 강한 색채 대비를 시켜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중부지방의 탈은 주로 나무탈이며 북부와 남부의 중간 형태로 부드러우면서 유머가 있고 색 슈얼하며 밋밋하면서도 인간적이며 기교적이다(그림 3, 4, 5, 6)

남부지방의 탈(그림 7)은 북부지방의 탈에 비해 박, 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졌고 모양 또한 다양하였다.

<그림 8>의 원양반 탈은 조롱박을 사용하여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눈 부분이 상당히 과장되고 날카로워 표독스런 인상을 준다. 북부지방의 탈에는 눈구멍이 코 양쪽에 뚫어져 있는데 남부지방의 탈은 눈동자 위치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 특히 원양반 탈의 입부분은 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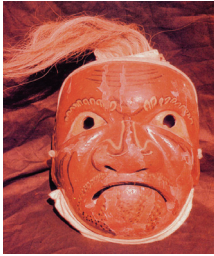
<그림 1> 봉산, 취발이탈 (나무탈, 북부) (출처: 한국 가면의 연구 (P.102) 최상수, 1984, 서울: 성문각.)

<그림 2> 강령말뚝이탈 (종이탈, 북부) (출처: 한국 가면의 연구 (P.124) 최상수, 1984, 서울: 성문각.)

<그림 3> 양주산대, 눈끔적이탈 (나무탈, 중부) (출처: 한국 가면의 연구 (P.71) 최상수, 1984, 서울: 성문각.)

<그림 4> 양주산대, 미알할미탈 (나무탈, 중부) (출처: 한국 가면의 연구 (P.86) 최상수, 1984, 서울: 성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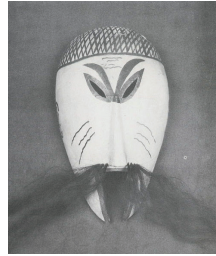
<그림 5> 양주산대, 눈끔적이탈 (나무탈, 중부) (출처: 한국 가면의 연구 (P.70) 최상수, 1984, 서울: 성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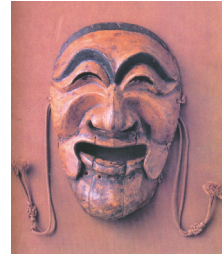
<그림 6> 양주산대  
취발이탈 (나무탈, 중부)  
(출처: 한국 가면의 연구  
(P.80) 최상수, 1984, 서울:  
성문각.)



<그림 7> 통영오광대  
홍백탈 (나무탈, 남부)  
(출처: 한국 가면의 연구  
(P.151) 최상수, 1984,  
서울: 성문각.)



<그림 8> 통영 오광대,  
원양반탈(바가지탈, 남부)  
(출처: 한국 가면의 연구  
(P.149) 최상수, 1984,  
서울: 성문각.)



<그림 9> 하회탈놀음  
하회탈 (나무탈, 남부)  
(출처: 한국 가면의 연구  
(P.157) 최상수, 1984,  
서울: 성문각.)

리 꼴 형태로 잘라내어 그 주변을 입술처럼 표현한 것이 특이하다. 색감은 통영오광대 원양반탈과 김해오광대 말뚝이 탈에서처럼 얼굴에 중간채도의 노랑과 브라운을 썼으며, 검정과 금색, 중간채도의 빨강으로 눈과 눈썹, 입을 표현했기 때문에 중채도의 대비가 조화되어 부드럽고 친근한 감을 준다. 청보양반 탈 같은 고성 오광대탈은 당초지를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 입체감과 재질감이 풍부하며 다양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며 종이탈보다 더 견고하다. 남부지방 탈은 북부의 탈이 사각형인데 비해 대체로 인간의 얼굴과 상당히 가깝게 표현되어 있으나 섬세하면서도 과장되고 날카로워서 강한 개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진다(심명식, 1987).

### 3. 탈의 종류 및 역할

#### 1) 탈의 종류

한국 탈을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신앙(信仰)탈이고 다른 하나는 예능(藝能)탈이다. 신앙탈이란 탈을 어떤 일정한 장소에 안치해 두고 그 탈에 고사를 지내거나 또는 탈을 얼굴에 쓰고 악귀를 몰아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예능탈이란 탈을 얼굴에 쓰고 무용 할 때나 연극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예능탈에도 신앙적인 일면을 얼마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신앙탈의 종류를 보면, 일정한 처소에 안치(安置)해 두고 제사만을 지내는 신앙탈, 악

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얼굴에 쓰는 구나(驅儺)탈이 있다. 둘째 예능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춤을 출 때에 얼굴에 쓰는 무용(舞踊)탈, 연극을 할 때에 얼굴에 쓰는 연극(演劇)탈이 있고, 또 민속놀이를 할 때에 쓰는 민속놀이 탈이 있다.

계도표에 나타난 한국 탈의 종류를 각 지방별로 분류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에서 탈의 분포 지방을 도표로 꾸며 보면 다음과 같다.

#### 2) 탈의 역할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영역 중에서 탈을 쓰고 공연하는 탈놀음만큼 민중의식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민중의 입장에서 사회를 비판하는데 과감한 태도를 보인 것은 없다고 본다. 탈놀음의 형성은 국가적인 행사와는 별도로 존재하던 민중적 전승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탈놀음이 곳에서 극으로 이행하고 극으로서의 발전을 이룬 과정은 민중생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고 민중 의식의 성장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농촌에서 부락곳은 농민들이 소란스럽게 떠들며 기분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년 내내 양반에 억눌려 지내다가 며칠 동안은 마음껏 놀 수 있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 주술적(呪術的)인 방법으로 풍년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합리적인 농사기술이 등장한 후에도 부락곳이 계속 존속해 온 이유는 부락곳이 가지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탈놀음은 농민들만 모여 억눌린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

<표 2> 각 지방별 탈의 종류

지방	탈놀음의 종류	탈의 종류	
농촌	하회탈놀음	선비, 양반, 중, 각시, 부네, 초라니, 이매, 할미, 백정, 주지	
	병산탈놀음	선비, 양반	
도시	북부	봉산탈놀음	취발이, 노장중, 원숭이, 말뚝이, 망양반, 둘째 양반, 종가 도련님, 소무, 상좌, 떡중, 미얄 할미, 미얄 영감, 남강 노인, 사자
		황주탈놀음	양반
		해주탈놀음	말뚝이, 떡중, 대양반, 소양반, 떡척꼬리 양반, 종가 도련님, 소무, 영감, 할미, 원숭이, 남강노인, 취발이
	중부	강령탈놀음	사자, 원숭이, 말뚝이, 떡중, 상좌, 망양반, 둘째 양반, 셋째 양반, 영감, 남강 노인
		양주산대탈놀음	연잎, 눈끔적이, 읍, 노장중, 샌님, 완보, 떡중, 취발이, 소무, 애사당, 상좌, 왜장녀, 신 할아버, 미얄 할미, 원숭이, 포도부장
		구과발산대탈놀음	읍, 연잎, 눈끔적이, 완보, 떡중, 샌님, 말뚝이, 포도부장, 노장중, 취발이, 왜장녀, 소무, 애사당, 상좌, 원숭이, 신, 할아버, 미얄 할미
	남부	강릉탈놀음	양반, 소매각시, 시시딱딱이
		진주오광대탈놀음	오방신장군 탈, 5문둥이 탈, 무시르미, 어딩이, 중, 상좌, 소무, 생원님, 차생원, 용생원
		마산오광대탈놀음	오방신장군 탈, 중(노장), 말뚝이, 문둥이, 청보 양반, 지차양반, 눈머리떼, 턱까불, 콩밭골손, 초라니, 흥백, 할미, 제물집, 사자, 담비(담보)
통영오광대탈놀음		원양반, 차양반, 터럭양반(모양반), 흥백, 코비뚜러미, 할미, 소무, 조래중, 문둥이, 사자, 담비	
고성오광대탈놀음		청보 양반, 간 양반, 젓 양반, 말뚝이, 중, 할미, 제물집, 초라니, 문둥이, 영감, 소무	
김해오광대탈놀음		종가 양반, 도령 양반, 어딩이, 말뚝이, 노름꾼, 중, 상좌, 영노, 포졸, 큰이(본처), 작은이(첩), 담비(보), 사자	
수영야유탈놀음		말뚝이, 영노, 범, 사자, 할미, 제대 각시, 수양반, 지차양반, 셋째 양반, 넷째 양반, 종가집 도령님	
동래야유탈놀음		말뚝이, 모양반, 원양반, 차양반, 넷째양반, 종가집 도령님, 할미, 제대 각시, 문둥이	
북청사자놀음	사자, 양반, 꺾쇠		

회인 부락굿을 더욱 발전시켜 연기와 대사로써 양반을 바보로 만들고 양반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하는 연극이다. 부락굿이 탈놀음으로 발전하면서 농민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시키려는 노력과 이 노력을 좌절시키려는 항거가 더욱 격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반과 농민의 다툼은 반드시 가혹한 승패를 나누는 데까지 가지 않았고, 타협에 이르기도 했다. 이 타협은 분명히 농민에게 유리한 것이나 양반쪽으로 보아서도 타협이

불리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탈놀음에서 표현되는 양반과 농민에 대한 갈등을 재판으로 나타낸다. 이 재판은 어디까지나 희극적(喜劇的)인 재판이다. 희극은 겉으로는 심각하지 않은 듯이 가장하며 그저 웃기기 위한 동작이나 말장난 같은 대사를 늘어놓으면서 실제로는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판정신(批判精神)으로 사회적인 비정상상을 폭로하고 야유하는 연극이다.

이러한 희극적 재판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이 탈이다. 양반은 양반탈을 쓰고 양반

에게 어울리는 거동과 차림새를 갖춘다. 이에 농민은 농민들이 쓸 수 있는 탈과 차림새를 하고 실제 양반과 다른 모순된 양반을 폭로하고 부조화를 통해 양반에 대한 기존의 통념이 파괴되고 가리워졌던 진실을 들추어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탈을 씌으로써만이 행해질 수 있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농촌탈놀음을 기초로 하여 도시탈놀음이라 부를 수 있는 보다 발전된 탈놀음의 탈들이 출현했다. 도시 탈놀음은 도시적인 성격을 띤 고을에서 상인(商人)이나 이속(吏屬)이 주동이 되어 공연하는 연극이다. 18세기 중엽 송파, 양주, 봉산 등지에서 상업도시가 성장하고 이와 함께 도시 탈놀음의 뚜렷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도시 탈놀음은 상인과 이속의 경제력과 생활의 여유로 인해 농촌 탈놀음에 비해 모든 것이 화려해졌고 스스로의 경제력에 의해 양반의 지배체제에 대한 보다 강한 반감을 표현할 수 있고, 적극적이다. 도시 탈놀음에 두루 등장하나 말뚝이탈의 말뚝이는 양반의 하인이면서도 양반을 풍자하는 주체(主體)이며, 말뚝이와의 대결에서 양반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에 이른다. 또한 취발이 같은 상인의 전형이 등장하여 노장의 관념적 사고와 양반의 신분적 특질을 과감하게 공격한다.

이와 같이 농촌 탈놀음은 양반의 허위를 폭로하는데 그치나 도시 탈놀음은 말뚝이를 내세워 민중의식(民衆意識)을 긍정하는 연극이다. 그러기에 초랭이나 이매가 말뚝이로 바뀌었다는 것은 농촌 탈놀음에서 도시 탈놀음으로의 발전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와 같이 탈은 민중의식의 발전을 가져다주었고 봉건적 특권의식에 도전하고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 민중의 해방이 임박했음을 나타내 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 Ⅲ. 한국탈의 조형적 특성

한국의 탈은 지역에 따라서 재료와 형태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11-12세기의 신앙탈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농촌탈놀음인 병

산, 하회탈과 18세기 중엽 이후의 대중적(大衆的)인 도시탈놀음인 강령탈춤, 양주산대놀이 등에 사용되었던 탈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것들을 북부, 중부, 남부지방의 탈들로 3대별하여 개괄적 특성을 살펴보고, 탈들에서 보여지는 과장된 형태미, 강렬한 색채대비, 풍자를 위한 유머와 요철감 있는 표면 재질감을 나타내는 소재 등 디테일 한 사항들을 차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형태

그리스나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예능탈에서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의 골격과 모습을 볼 수 있듯이, 한국 탈은 한국적인 표정을 지니고 있으니 인상탈은 그 모두가 한국 사람의 골격과 용모가 잘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에 따른 인물의 개성도 잘 표현되어 있으니, 특히 하회의 선비, 양반, 각시, 중, 백정이 그러하며, 탈들은 사실적인데, 그 조각 수법은 한국 목제탈 중 일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탈은 대부분 그 형모(形貌)가 그로테스크(Grotesque)<sup>3)</sup>하고, 또 색채가 농후한데 특질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탈들의 용모가 무시무시함과 동시에 표정이 매우 딱딱한 것도 특색의 하나였다.

한국 탈은 형모가 그로테스크하고, 색채가 농후한 특질이 있지만, 그 표정에 있어 사실적인 것은 적고, 대부분이 상징적이며 해학적인 것이 또한 그 특색의 하나였다(최상수, 1984).

이 대표적인 탈로는 봉산 탈놀음의 취발이 탈(그림 1)이 있다. 이 탈은 북부지방의 탈로써 다른 탈들에 비해 요철굴곡이 심한 비사실적인 형이 대부분이고 특히 귀면(鬼面)형으로 서장계를 방불케 하는 바가 있다(한국민속극 연구소편, 1952). 목제(木製)(그림 1)와 지제(紙製)가 있는데 거의 같으며 이마에는 세 가닥의 주름살이 가로로 도드라졌는데 검은색과 흰색을 번갈아 탈서 내리 그었으며 도드라져 나온 눈썹 역시 흑백색으로 번갈아 내리그었다. 이마 한가운데는 굴곡이 3층(層)으로 되어 있는데 각 혹 위에 금지(金紙)를 둥글게 오려 붙였다. 봉어모양의

3) grotesque : 인간, 동물, 식물의 공상적인 형상을 결합시킨 것으로 괴기하거나 우스꽝스러움을 말한다.

눈은 크며 눈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그렸고 눈자위는 희며 눈알은 검은데 그 위에 금지(金紙)를 가름하게 오려 붙였다.

이 취발이 탈의 과장된 형태미를 언급하기에 앞서 봉산 탈놀음에서 취발이의 역할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봉산탈춤은 상인이나 부유한 의탈놀음으로 발전했고, 그들의 전형으로써 취발이가 작품에 등장하기에 민중적인 현실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적대적인 관념론이 이에 대하여 더욱 과감하게 비판한다 할 수 있다. 취발이는 농촌 탈놀음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인물이고, 발전된 도시 탈놀음이 창조해 낸 가장 긍정적인 인물이다.

취발이 탈은 소무와 놀아난 노장 스님을 내쫓고 그녀를 임신시켜 애를 낳게 하는 비행을 저지르지만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취발이(조동일, 1975)를 나타낸 것으로 노장스님이 상징하는 위선과 종교적 권위, 현실 도피적인 의식에 도전하여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극중 인물의 탈이다.

취발이는 젊은 총각이고 힘이 강하며 날렵이 비호갈아 소무와의 생활을 시작하자 바로 아들을 낳는다. 극중 탈놀음의 내용을 이해하면 취발이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강한 일면이 얼굴의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마의 울퉁불퉁한 주름과 강하게 도드라진 눈썹은 젊고 활기찬 것을 상징한다. 붉은 색은 남쪽이고 여름이며 이는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취발이는 돈이 많으며 돈을 힘으로 삼는 자의 전형이었다.

강령의 말뚝이 탈(그림 2)은 귀면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훨씬 사실적이다.

말뚝이탈은 종이로 만들었으며 붉은 색을 칠한 얼굴에 희고 검은 반점이 무수히 찍혔고, 눈썹이 도드라져 나왔는데, 검고 흰줄을 세로로 그렸으며 눈꼬리가 아래로 처졌는데 눈자위는 희게 칠하였다. 길쭉한 눈알을 검게 칠하고 위에 금지를 오려 붙였다. 눈구멍은 코와 눈 사이에 뚫렸다. 콧구멍은 뚫렸고 코는 길게 불거져 나왔으며 벌름하게 뚫린 입 양쪽에는 흑이 붙어 있는데 콧등과 두 흑과 턱 위에는 금지를 붙였다. 이 탈의 조형적인 특성은 눈썹과 눈두덩을 튀어나오게 만든 후 안구를 뚫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 탈은 회화적 조형성보다는 소박한 향토성을 느끼게 해준다. 입은 적당히 반달모양으로 열려있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형태이고, 두드러진 눈썹과 눈의 방향이 대각선 구도를 하고 있어 북부지방의 강인함과 진취적인 조형미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중부지방의 탈은 양주산대놀이 탈에서 보여 지듯이 대체적으로 선이 둥글고 사실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곡선과 곱게 다듬어진 볼록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색감이 밝고 회화적으로 배합되어 있다. 대표적인 탈로 연잎탈과 눈끔적이탈, 옴탈, 취발이탈, 미알할미탈, 떡중탈이 있다.

이 양주산대 탈놀음의 내용은 조선조 서민문학(庶民文學)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파계승(破戒僧), 몰락한 양반, 무당(巫堂), 사당(社堂), 하인 및 기타 노유서민(老幼庶民)들의 등장을 통하여 현실폭로와 풍자, 호색(好色), 웃음과 탄식을 보여준다.

그 주제를 크게 나누면 파계승놀이와 양반놀이, 서민 생활상을 보여주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특권계급과 형식 도덕에 대한 일종의 비판정신을 구체적으로 연출하는 민중극이다(이두현, 1979).

이 탈놀음은 남녀 갈등보다 양반과 평민의 대립관계에 역점을 두어 양반에 대한 모욕을 더욱 첨예화시킨 것 같다. 그리고 계급차별에 대한 자각과 남녀 차별에 대한 자각과의 차이로 보아 진다(이두현, 1979).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탈의 형태에 대한 표현 방법의 차이에 대해 훨씬 이해가 쉬워진다.

눈끔적이탈(그림 5)은 눈을 뜨고 있는 탈로 목제이며 연잎 탈과 거의 같은데 다른 점은 양 눈썹 안쪽에는 공간을 두어 금색 쇠조각이 붙어 있어, 내부에서 연회자가 쇠조각에 연결시켜 놓은 끈을 입으로 물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 눈이 감졌다 떴다 하게 되어 있고, 양쪽에 귀가 있다. <그림 3>의 눈끔적이탈은 눈을 감고 있는 모양인데 이 탈들은 연잎 탈이 하늘만 쳐다보고 춤을 추는데 반하여 땅만 내려다보고 춤을 추면서 등장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눈을 꿈적이다. 특히 눈끔적이탈의 금속 눈은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이것은 황금 사명의 방상씨 탈에서 어



뎌 암시를 얻어서 약간 다르게 혹은 비슷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머리 위는 원뿔 모양을 이루고 있고 눈을 지긋이 감고 있는 듯한 이 탈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약간 바보스러워 보이면서도 인간미를 느끼게 한다.

이 탈의 눈은 뎌다 감겼다 할 수 있는 유동적인 형태로 조형성이 강조된다. 눈꺼풀이탈은 무언(無言)의 투쟁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본질적인 표현수단으로 삼아 그 속에 내재된 갈등을 순수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준다(조동일, 1988).

이렇게 내포된 바와 같이 연잎탈이나 눈꺼풀이탈의 형태도 상당히 사실적이며, 이러한 갈등을 무언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듯한 표정들이고 상당히 발전된 유동형이다. 눈꺼풀이탈들의 입이 대체적으로 웃고 있다.

취발이탈(그림 6)은 목제(木製)이며 주홍색을 칠한 면에 머리에는 머리카락을 한 묶음 붙였고, 이마에는 여러 가닥의 주름이 검은 색으로 그어졌으며, 눈썹은 누런색으로 꼬불꼬불 그렸고 눈은 봉어눈 모양인데 눈자위는 누런색을 칠하였으며 눈알은 뚫리고 양쪽 귀가 있다.

이는 술에 취한 사람을 나타낸 것으로 다소 과장된 투박한 모습으로 둥글고 선이 그어져 있는 큰 코, 입 주변의 형태로 보아 고생하되 우직하게 살았고 억세고 거친 서민의 모습이다(조동일, 1988). 하지만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흘러내리면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취발이가 되었다.

미알할미탈(그림 4)은 목제(木製)로써 검은 색을 칠한 면에 이마에는 많은 주름이 그어져 있고 반달형 눈썹에는 금색으로 여러 줄을 그어 표시하였으며 눈은 봉어눈 모양인데, 눈자위는 금색이고 좌우에는 붉은 색을 약간씩 찍었다. 눈알은 동그랗게 뚫렸다. 양뺨에는 주름이 많이 그어졌고, 코는 긴데 콧구멍에는 붉은색을 칠하였고 입술은 붉은 색이고 입은 뚫렸으며 턱에는 가로로 주름이 많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양쪽에 귀가 있다.

이 미알할미 탈은 임진란과 동학란 이후 실학과 동학의 자유, 평등사상과 남녀 동등의식이 고취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를 풍자했던 탈로 여성관에 대한 민중 의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지식 잃고 남편까지 빼앗기고 고

생에 찌든 미알할미는 봉건제도로 인해 잘못된 사회제도와 일부다처제에서 오는 여성의 인격 비하에서 신음하는 여성이다(심명식, 1987).

할미의 영감을 첩에게 빼앗겨버린 늙고 무력한 할미가 겨울의 상징이라면 젊고 정력적이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첩은 여름의 상징이다. 여름이 겨울을 이기리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받는 고통으로 인해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탈의 외형적 형태에 나타나 있다.

하회 탈놀음의 탈은 기술이나 조형미가 우수하며 옛 선인들이 문화 예술에 관한 수준을 가늠케 할 수 있다. 다양한 등장인물의 성격과 모습을 제각기 입체적으로 개성있게 형상화하려고 다른 조각품에서는 살려내지 못한 인물들의 표정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기법을 사용했다.

하회탈(그림 9)은 목제로써 가름한 얼굴에 주홍색을 칠하였고 눈썹은 움푹 들어갔으며 검다. 양 뺨은 두두룩한데 가느다란 주름살이 있고 이마 위 부분은 검은색을 칠하였다. 양 눈과 콧구멍, 입은 뚫렸으며, 턱은 따로 만들었는데, 노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코 밑과 턱에는 수염을 붙이는 구멍이 여러 군데 뚫어져 있다. 표정은 활짝 웃고 있는데 이 지체 높은 하회탈 뿐 아니라 양반탈들의 입을 보면 반듯하고 턱이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신분적 특권을 말해준다.

이 탈의 표정에는 그 당시 권위 의식에 젖어 있고 체통만을 중시하는 양반들을 서민들이 바라는 인간상으로 나타내었던 듯하다. 실제보다 높은 코는 콧대 높은 삶을 누리는 지배층의 남성을 상징한다(남희제, 1992). 이 하회탈은 세계 어느 조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강한 입체성뿐만 아니라 역동적 가변성이 생동하고 있다(김수남, 임재해, 1988).

한국 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형화(定型化)되어 있다는 점이다. 양반탈은 기품 있어 보이나 천민은 두루뭉수리 같이 생겼다. 희화적으로 묘사한 몇몇 양반탈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반탈은 이마가 넓적하고 이목구비가 번듯하다.

오늘날 전해오고 있는 탈은 대부분 사실적인 인물탈로써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한 과장된 모

습이 많지만 인간적이면서 전체적으로 묘한 조화를 이룬다. 일탈이나 과격을 이루되 그것이 흘러넘치지 않는다. 얼굴 모양을 보면 원형, 원추형, 역삼각형, 달갈형, 말상 등으로 다양하다. 눈의 모양도 각양각색이다. 통방울 눈, 움푹 들어간 눈, 실눈, 위로 찌진 눈, 아래로 처진 눈, 사팔뜨기에 짝짝이 눈 등으로 혼다. 입이나 코의 모양새도 주물러 놓은 듯 선택적 왜곡이 심하다. 게다가 불거진 광대뼈며 주름살, 파리똥, 움, 혹, 여드름, 점박이, 언청이, 주걱턱에 부러진 이빨 등을 하고 있다.

이렇듯 탈의 형상 자체에서는 신분적 특권이나 관념의 숭고성, 또는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 존재로서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이런 현실을 비판적으로 의식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더불어 형상화함으로써 서로 어긋나고 상반된 부조화를 이루는 듯하나 이러한 이원적 형상성이 바로 탈의 가변성을 획득해주고 사회의식을 예술적으로 드러내주는 적극적인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바로 이 탈을 매개로 모든 불가능은 가능해 질 수 있고 이원적 대립이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우리 탈의 전체적인 형상을 얼굴의 윤곽과 비슷하게 가름한 타원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바가지탈의 경우는 원형이나 계란형에 가깝지만 나무탈과 종이탈은 모양이 다양하다. 하회의 백정탈과 같은 장방형이 있는가 하면, 초라니와 같은 역삼각형, 중탈과 같은 역 사다리꼴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형태미를 가졌다고 본다.

우리 탈의 특성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탈보다 인간화(人間化)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사람 연출을 하고 있다. 북청사자탈, 봉산사자탈, 양주별산대나 봉산탈의 원숭이탈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얼굴을 하고 있음을 역력히 볼 수 있다.

한국의 탈은 순전히 서민의 눈으로 세계와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만들어져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장인적(匠人的)인 입장이 아닌 순전히 유희적이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탈에는 상징성도 있지만 해학적인 면이 강하다. 오늘날 한국인의 생활감정을 심원하게 표현한 것으로 혼

히 하회와 병산을 꼽는다. 수그리면 서러운 표정이고 짓하면 기쁜 표정을 보여주는 이 탈들은 한국인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담고 있다.

## 2. 색채

색채 역시 조형상의 특징에서와 같이 북부는 강렬한 색채대비를 보이며 중부와 남부는 그에 비해 약화된다.

이것은 사용상에 있어서 야간 구화(構火)의 조명하에 연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렬한 색채로써 하지 않으면 표현의 힘을 약하게 할 염려가 있고, 또 그 형모의 그로테스크한 것도 다분히 이와 같은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예로 봉산의 취발이탈, 강령의 양반탈에서 보면 강한 붉은색과 검정, 흰색의 강렬한 색채대비를 눈썹 부분에 보여준다.

반대로 탈놀음에 사용되지 않는 개성 덕물산의 신앙탈과 정식으로 야간에 연희하지 않는 강릉 및 하회의 탈은 색채가 그렇게 강렬하지 않음을 보아도 알 것이다.

중부의 양주산대 취발이의 붉은색 얼굴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서민상의 표현이며, 여색을 즐길음을 나타내었고 하회 나무탈들은 나무원색을 그대로 썼다. 그리고 채색(彩色)상으로 보면 주홍(朱紅)의 사용이 절대 다수이고, 흑남색(黑藍色)을 주로 많이 사용하였고, 또한 금색, 은색(銀色)도 적잖이 사용하였다.

우리의 탈은 대체로 원색적이고 강렬하나 사방(四方)과 중앙(中央)을 가리키는 벽사(辟邪)의 오방색(五方色: 赤, 靑, 黑, 白, 黃)은 자연 속에서 노출되지 않고 자연 일부로서 보이며 서구적 정서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강렬하게 비친다. 이러한 원색들 가운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붉은 색인데 동물 탈을 제외하면 취발이와 말뚝이 등 젊은이의 탈들 즉 탈춤 연행 가운데서 양반이나 노장 등 늙은이와 지배층을 공격하는 탈들이 붉은 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붉은 색이 젊음과 활기를, 그리고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흑색과 흰색 탈이 많은데, 흑색 탈은 주로 중탈과 할미탈, 또는 움탈 등에서 주

로 보이며, 흰색 탈은 여성탈들을 제외하면 대개 지체 높은 양반이나 샌님 탈들이다.

### 3. 소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탈의 소재에는 나무, 종이, 바가지, 털가죽, 대나무 등을 주로 사용하고 짚, 새끼, 노끈, 털, 나뭇조각, 철물 등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여 탈을 제작하였다. 나무는 칼로 깎아 제작하므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부착물들을 덧붙일 필요는 없었고, 한지를 여러 겹 발라 채색하여 사용하거나 나무 그 자체로 깎은 뒤 칠을 하여 사용했던 것 같다.

종이는 마분지 그대로 접어서 얼굴 윤곽으로 자르고, 눈·입 등을 오려낸 후, 먹과 물감으로 그려서 완성했다(그림 6). 종이탈 중에서 흙으로 탈의 모양을 빚은 다음 그 위에 한지를 여러 겹 발라서 말린 뒤 흙을 떼어내고 눈·코·입 등을 뚫어낸다. 그다음 물감으로 채색하여 만든 탈도 있다.

## IV. 한국 탈의 조형미를 활용한 호텔 유니폼

### 1. 디자인 의도

북부·중부·남부 탈들 중에서 의상디자인 전공자들이 전통미를 중요시해서 가장 많이 선택한 5개의 탈들을 선정하여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탈의 조형미를 디자인 요소로 삼아 작품제작을 하고, 그 용도는 유니폼으로 하고자 하며 그 작업환경으로는 호텔로 지정하고자 한다.

#### 1) 탈의 조형미

##### ① 북부 강령 말뚝이탈(그림 2) :

북부탈의 특징은 그로테스크한 형상에서 도드라진 눈썹과 푹 볼거진 눈은 무서운 인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와 동시에 대각선 구도의 눈과 눈썹은 상당히 진취적인 강인함이 내재되어 있다.

눈 양쪽의 구멍은 관객을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콧구멍의 역할도 하고 있다. 반쯤 열려진 입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 말의 자유를 뜻한다.

##### ② 중부 양주산대 눈끔적이탈(그림 3, 5) :

눈썹과 입주변의 형태는 연잎탈과 비슷하고 눈을 지긋이 감고 있는 모습은 연잎탈보다 더 포용성이 내재된 듯하다. 이 조형적인 특성으로 보아 연잎탈과 눈끔적이탈의 탈놀음에서 역할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무언의 항쟁이 담겨져 있다.

뺨다 감았다 하는 눈의 형제와 코, 웃은 입의 모습은 입체적이면서 상당히 희화적이다. 이는 의식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에게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심어주는 속세에서 선생님과 같은 탈이었다. 눈끔적이탈은 불교적·도교적·유교적 상징소를 두루 동원하여 존귀하고 고결하며 비상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 ③ 중부 양주산대 취발이탈(그림 6) :

취발이탈은 술에 취한 상인을 나타낸 탈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신명을 풀어야 살 수 있다고 하며, 삶의 욕망을 긍정하고 삶을 예찬함으로써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현실적이고 서민적인 이 탈은 과장되고 투박한 모습과 둥글고 선이 강한 큰 코, 입 주변이 시선을 끈다. 주름이 많이 표현된 점으로 보아 고생으로 찌들어 억세고 거칠어진 모습이지만 머리를 한 쪽으로 흘러내리면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 상당히 섹시한 멋있는 남성 탈이다.

##### ④ 중부 양주산대 미알할미탈(그림 4) :

다른 탈과는 달리 눈동자 끝이 빨갛다. 영감의 이중생활에 시달려 지쳐서 충혈된 모습을 나타낸 듯하다. 불과 이마에 깊이 잘 패어져 나타나 있는 주름은 삶의 고통의 흔적이요, 나이의 표현이다. 인생의 고통을 인내로 승화시킨 강인한 여성상의 탈인 것이다.

##### ⑤ 남부 하회탈놀음 하회탈(그림 9) :

한국 탈의 대표적인 탈로 턱이 떨어져 유동적이어서 표정의 변화를 믿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 또한 양반의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말의 자

유가 보장되어 있음과 체통을 중요시하는 양반에게 서민들이 바라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인자하게 웃는 눈과 눈썹에서 볼에 이르기까지 강한 입체감이 보여지고, 검은 눈썹과 웃고 있는 작은 눈의 모습은 양반의 이중성을 감추는 듯하다. 다른 탈에 비해 작은 코는 양반의 높은 콧대를 약화시키고자 함이라고 본다. 얼굴의 비례에서 코 아래의 비율이 크고 턱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양반의 잘못된 비정상적 생활관의 표현으로 보인다.

## 2) 유니폼 환경으로서의 호텔

호텔의 업무는 객실부문의 업무, 식음료 부문의 업무, 관리 부문의 업무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호텔에서 가장 고객과 많이 접하는 객실부문과 식음료 부문 중 웨이터, 웨이트리스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객실부문은 유니폼 서비스 부문, 프론트오피스 부문, 하우스키퍼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 ① 객실부문

#### 가. 유니폼 서비스 부문

㉠ 도어맨(Door Man): 현관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도착객을 영접하고 짐을 내리는 것을 도울뿐 아니라 도착객, 출발객의 짐을 감시하고 벨맨(Bell Man)의 업무를 협조한다. 또 고객이 타고온 자동차의 주차를 감독하고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택시를 불러준다.

㉡ 벨맨(Bell Man): 고객의 짐을 객실로 운반하며, 고객을 그의 객실까지 안내하여 모신다. 그리고 호텔의 서비스 및 관광코스에 대한 설명도 한다. 벨맨의 친절은 고객에게 더한층 만족한 기분을 갖게 할 수 있다.

#### 나. 프론트오피스 부문(Front Office)

㉢ 프론트오피스 지배인(Front Office Manager): 프론트 오피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업무다.

㉣ 룸 클럭(Room Clerk): 사용 중에 있는 객실을 파악하고 객실을 판매하는 업무다.

㉤ 프론트 회계(Front Cashier): 빌 클럭과 프

론트 캐셔로 구성되며 소규모 호텔에서는 룸 클럭, 인포메이션 클럭, 빌 클럭들이 모두 수납 업무를 수행하여 객실부문의 회계처리를 담당한다.

㉥ 인포메이션 클럭(Information Clerk): 호텔에 오는 우편물을 분리한 다음 고객 우편물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전보나 메일 등도 체크하여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예약 클럭(Reservation Clerk): 객실의 예약 업무를 맡는다.

㉧ 나이트 클럭: 야간에 근무하며 그 당시 판매된 객실과 미 도착객의 유무나 숙박자 점검 등 심야 고객의 안전을 도모한다.

② 하우스 키퍼(House keeping): 호텔의 청결과 객실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하우스맨(Houseman)이나 룸메이드는 객실 및 공공시설의 청소와 메이크 베드(make bed)가 주 업무다. 또한 고객이 객실에서 숙박하는 동안 고객의 재산과 생명을 보급하고 안전 유지나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③ 식음료 부문(Catering department): 음식(Food)와 음료(Beverage) 및 서비스(Service)를 판매한다. 음식 및 음료는 유형적이며 고객에게 제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술과 감독을 구하게 되고, 다른 품목인 서비스는 무형이다. 이것은 종사원의 능력과 봉사정신을 요구한다. 이 부문에서는 조리기술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웨이터, 웨이트리스의 정중한 서비스다.

㉠ 조리사(Cook): 주방 부문의 조리사는 음식의 조리 및 판매준비가 주된 업무이며 새로운 손님의 요구가 있을 때 직접 주문을 받기도 한다. 대개 남자의 직종이며 주방장, 조리사, 그리고 보조원으로 나누어진다.

㉡ 웨이터와 웨이트리스(Waiter & Waitress): 손님에게서 음식을 주문 받고 주문 받은 음식을 제공하며 고객에게 계산서를 제출한다. 식사 도중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식사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바 텐더(Bar Tender): 음료 및 각종 주류의 준비와 판매를 담당한다.

## 2. 작품 제작

본 논문은 현 유니폼에 우리나라 민중의 미의식이 나타나 있는 고유의 탈 중에서 조형성이 강하거나 색의 대비 등 디자인 전공자들이 디자인하기 좋은 탈로서 선호한 순위를 조사하여 5위까지의 5개 탈들을 선정하여 유니폼 디자인으로 창출하였다.

우선 선정된 탈의 조형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디자인에 적용시켰는데 우선 소재 쪽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구성선에 연결시켜 칼라(collar)나 바디스(bodice)의 선(line) 등 탈의 조형미를 디자인으로 활용하였다.

디자인화 된 슈트(suit)를 먼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고 도식화를 그린 뒤 일반적인 기성복 사이즈에 맞추어서 패턴(pattern) 제작을 하였다. 그 뒤 패턴에 따른 작품제작을 광목으로 먼저 만들고 디자인에 따른 소재를 선정하여 작품 지시서에 따라서 유니폼 슈트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소재는 유니폼인 관계로 실용성과 편리한 착용에 중점을 두어 가격대와 세탁이 용이한 소재로 선택하였다.

탈의 조형미를 디자인으로 변형시킬 때는 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당시 사회상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요즘 유행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유니폼인 관계로 채도가 약간 낮은 색상을 선택하여 소재와 디자인이 같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작품마다 작품기획, 일러스트레이션 도식화, 패턴 작업지시서, 작품의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패턴 제작에 있어 스커트와 바지는 색상만 다를 뿐 패턴과 봉제방법이 같아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시하기로 하며, 사이즈는 55사이즈(B: 88cm, W: 72cm, H: 96cm)로 하여 패턴을 뜨고 1/5로 축소하여 그렸다.

작품 디자인을 위해 선정된 탈들을 살펴보면 ① 북부의 강령말뚝이탈, ② 중부 양주산대 취발이탈, ③ 중부 양주산대 미알할미탈, ④ 중부 양주산대 눈끔적이탈, ⑤ 남부 하회탈놀이 하회탈이다.

### <작품 1> 북부 강령 말뚝이탈 코트의 작품 기획

이 말뚝이탈은 얼굴의 색상에서 젊음과 활기를 느낄 수 있고 대각선 구도의 눈썹과 눈의 강한 구도에서 느낄 수 있는 진취적인 강인함을 디자인의 요소로 삼았다. 도드라진 눈썹과 눈썹에 그려진 흰색과 검은색의 선이 강하게 어필하도록 코트의 칼라로 나타내었고, 밑으로 처진 눈은 주머니의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검은 눈자위는 주머니의 엑센트 라인으로 바이어스 처리를 하고 칼라 위의 엑센트 선을 덧박아 입체감이 나도록 하였다. 추운 북부지방의 강한 인내심이 나타나 보여 겨울 코트로 디자인하였으며 피부색상을 나타내도록 소재를 베이지 색 캐시미어로 선택했고 다크 브라운 캐시미어로 엑센트선을 표현하였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아크릴 물감으로 칠한 후 스펀지로 흰색을 스텐실 기법을 이용하여 마무리 엑센트를 주었다. 이 말뚝이탈 코트는 옷감도 두껍고 형태상의 특징으로 보아 호텔에서 밖에서 활동하는 도어맨이나 백화점의 주차요원들에게 적합한 방한용 코트이다(그림 10, 11,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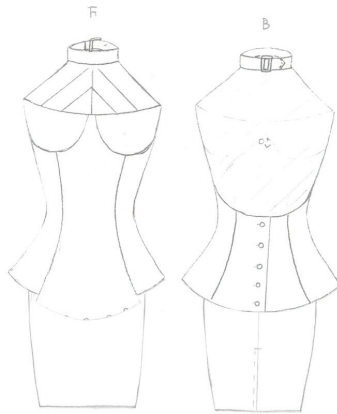
### <작품 2> 중부 양주산대 눈끔적이탈 슈트 작품 기획

눈끔적이탈은 상당히 입체적인 탈이면서 희화적 요소를 담고 있다. 감았다 떴다 하는 눈과 넓은 코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디자인 요소로 삼았다. 머리의 형태를 실루엣 선으로 삼아 가슴 위 요크를 사선으로 나타내어 목 뒤에서 여미도록 했다. 떴다 감았다 하는 눈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슴에서 지퍼로 처리하여 다른 일 색상으로 눈을 감듯이 연결시켜 덮어주었다. 이 악센트 색상부분은 떴다 붙었다 할 수 있어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게 하였고, 베스트 슈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블라우스에 따라서 악센트 색상은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작은 에이프런만 악센트 색상으로 입는다면 웨이트리스들이 입기에 적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 눈끔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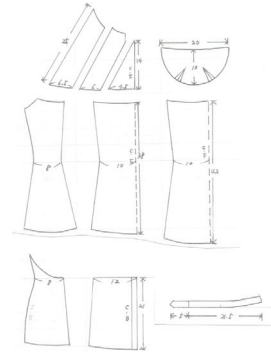




<그림 15> 작품 2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16> 작품 2의 도식화



<그림 17> 작품 2의 패턴

제품명: 양주산대 눈금적미탈 베스트(수트(의상))		일부 및 혼용용: 울급 - wool 30% / polyester 50%	
원.원규	원 규	안 규	안 규 - 100%
년용	(년용)	COLOUR (색상)	SIZE
원단명	T/W M(리치)	색이름	55 65
원 계	150cm 133cm	yellowish beige(노란색)	0
PCS당 표적	dark brown : 2yd beige : 1yd	2yd	패턴 및 봉제상의 주위사항
Quality Sample	패턴		양자합의 눈 모양 부분과 허리 지퍼로 내려오는 부분은 예로 예했다. 원단 vest 입단 할때 깎을 SK, 입단 3cm는 밑에서 깎을
	Design		시발처리 각 2cm 지단하여 인더록
Design		행 지 리	vest 중에서 깎을 SK, 패이스트 처리
Design		잡다불안	
Design		소재불안	
Design		실지자용	패이스트 무분안 할착상 무처리
Design		봉 지	면사
Design		스 티 제	
Design		단 추	원단추 21mm 5개
Design		단추구멍	23mm
Design		기타의 주의사항	
Design			* 패이스트 부분은 지퍼도 예했다 할 수 있는 문제

<그림 18> 작품 2의 작업지시서



<그림 19> 작품 2 눈금적미탈의 베스트 수트

의 이미지를 과장하여 자켓의 가슴 부분에 적용하였다. 이마와 볼의 패인 주름과 눈썹에 그려진 이미지를 변형하여 소매와 양 옆 개더로 처리하였다.

이는 실크로 소재의 변화를 주어 취발이의 색시한 멋을 나타내 주었고, 취발이의 붉은 얼굴색을 매력적인 취발이의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 보라색으로 사용하였다

이 의상은 인포메이션 클러어나 캐셔들에게 적합하며 호텔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도 입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보라색 수채화로 물감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을 하고 금색으로 악센트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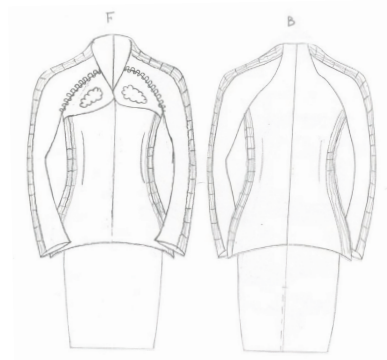
이 수트는 홍보직이나 엘리베이터 안내원들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유니폼이다(그림 20, 21, 22, 23, 24).

#### <작품 4> 중부 양주산대 미알할미탈 수트 작품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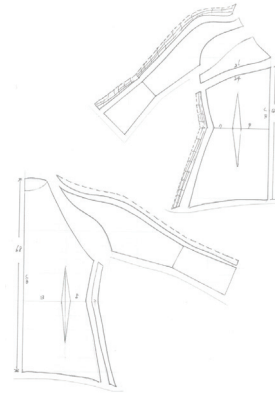
미알할미탈은 다른 탈과는 달리 눈동자 끝이 발강다. 이는 삶에 지쳐서 충혈되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한다. 나무탈이기 때문에 깊이 패어져 있는 주름이 잘 표현되어져 있다. 이렇게 패인 주름을 디자인으로 나타내었고 그 느낌이 그대로 표현되도록 이마의 주름은 가로로 볼의 주



<그림 20> 작품 3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21> 작품 3의 도식화



<그림 22> 작품 3의 패턴

제품명 : 양주선대 원단시탈 주희(여성)		성분 및 혼용율 : 면 50% / polyester 50%, silk 100%	
원단명	T/W M(리치), silk	색이름	purple
원단색	리치 : 110cm silk : 110cm	색이름	purple
PCS당 소재	purple 리치 : 2yd silk : 1yd	색이름	purple
Quality Sample		세 단	소재 질과 허리 밑면은 짧은 위즈드 로 처리할 것
Design		안감처리	JK 적당 받침치 적용 SK 앞안 3cm. 밑치 적용
		안단처리	JK 2cm로 예단처리 안단처리
		형 치 리	JK 속재의 적당수 적용 SK 세이브스 처리
		팔라폴림	노발라이드 안단처리 할 것.
		소재활용	짧은 위즈드를 박아서 소재의 연결 지 일 후 혼용과 불도도록 한다.
		실지사용	일 가슴 양자 부를 정확성 무형
		분 사 명차	
		스 락 치	갈채 양자 무형
		날 수	속단수 25mm 30개
		안주구멍	25mm
		안단처리	주희의 주희시탈

<그림 23> 작품 3의 작업지시서



<그림 24> 작품 3 취발이탈 조형미를 활용한 슈트

름은 세로로 패딩처리 하였다. 이 탈의 강인한 여성상을 나타내기 위해 소재를 가죽으로 선택 했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알함미탈의 느낌을 니트 소재로 처리하였다.

패딩처리 할 때 스티치 방향을 허리 중심선으로 모이도록 하여 두꺼운 가죽의 투박함을 약화시키도록 하고 요크 부분에 단추로 눈동자의 느낌을 표현해주었다.

이 디자인으로 미알함미탈의 강인함과 인내의 미학을 보여주고자 한다. 패딩처리를 한 이유는 과거에 여성들이 자신들에 대한 꺾박을 꺾끗하게 이겨낸 결과로 오늘 날의 여성상이 확립되었다는 관점에서 자켓에도 힘을 주기 위해 얇

게 솜을 넣어 박아 주었다. 스티치선을 주름선과 일치하도록 하여 미알함미탈의 조형미가 자켓에서 나타나도록 디자인하였다.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가죽을 나타내기 위해 먹물로 칠하였으며 니트 소재 표현을 해 주고 스티치는 은빛이 섞인 검은색으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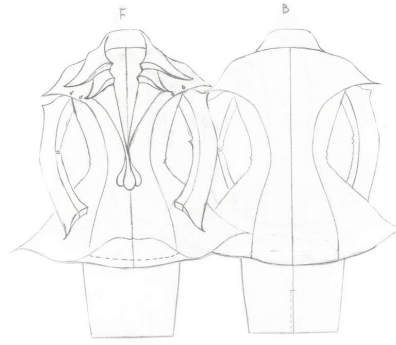
이 가죽 패딩 슈트는 겨울에 추운 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한용 슈트로써 주차요원이나 놀이 공원 등 보온을 요하는 직종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그림 25, 26, 27, 28, 29).







<그림 30> 작품 5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31> 작품 5의 도식화



<그림 32> 작품 5의 패턴

제품명 : 웨딩 웨딩드레스(여성)		성분 및 혼용율 : 울 50% / polyester 50%			
원단	원단	인공	면	100%	
내용	원단	COLOR	COLOR	SIZE	
원단명	T.W.M(이차)	색이름	dark blue	dark blue	O
유 계	150cm	120cm	ivory	ivory	
PCS당 표치	dark blue : 2.5yd ivory : 0.1yd	2.5yd	재단 및 봉제상의 주의사항		
Quality Sample	패		일반적인 웨딩드레스 길이가 아닌 입 제작된 웨딩드레스로 뒷부분은 Apex가 없다		
	연갈치리		JK 안감 안에서 먹이 처리 SK 뒷감 2cm 길이 박음		
Design		시뮬레이션		각 2cm 처리하여 원피복	
		패 처리		앞부분이 짧고 앞부분이 길므로 후 의뢰의 박음 필요	
		패라공임		JK 속에서 먹이 처리	
		소재공임		JK 속에서 먹이 처리	
		공치사용		JK 앞부분 길이가 짧고 후 의뢰의 박음 필요	
		봉 사		원사	
		스 니 치			
		단 수		속단수 23mm 1개	
		단추구멍		25mm	
		기타의 주의사항			

<그림 33> 작품 5의 작업지시서



<그림 34> 작품 5 하회탈의 조형미를 활용한 슈트

###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탈과 탈놀음에 대하여 고찰(考察)해 보았다. 그 결과 탈에는 그 당시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발전해 가는 민중의식의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탈들이 사용된 탈놀음에는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중 그 지역에 따라 다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북부지방은 제작기법에 있어서 도형에 좋기로 뜨는 한 가지 기법만으로 만들어졌으며 종이를 사용했으므로 다양한 표현과 비용은 적게 들었지만 사용기간이 짧고 세밀한 표현이 힘들었

다. 이에 반해 중부지방의 탈은 주로 나무탈이며, 북부와 남부의 중간 형태로 부드러우며 유머가 있고 색수열하면서도 인간적이며 기교적이다.

남부지방은 북부지방의 탈에 비해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되었으며, 색상의 대비가 부드럽게 조화되어 친근감을 준다. 당초지로 제작된 것은 입체감, 재질감이 풍부하고 종이탈보다 견고하다. 그리고 형태는 북부지방이 사각형인데 비해 대체로 인간의 얼굴과 비슷하게 표현되었고 섬세하면서도 과장되고 날카로워서 강한 개성적인 이미지로 보인다.

이렇게 탈의 조형적인 면을 분석해 볼 때 과장(誇張)과 왜곡(歪曲)을 통해 원형이 지닌 유력한 특징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눈, 코, 입 등의 기본적인 형상을 강화 또는 약화시켜 변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탈 속에 담겨진 조선시대인들의 자연주의적 성격과 신앙적 성격으로 집약된 조형적 특성과 시각적 이미지를 주제로 하여 각 탈에 담겨진 자연미, 인간미, 전통미를 왜곡보다는 과장을 하였고, 그 이미지를 변형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그 변화된 시각적 이미지를 디자인화 하여 유니폼 수트의 디자인으로 표출시켰으며, 이것을 먼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뒤 그에 따른 도식화와 패턴을 제작하였다.

첫 번째 강령 말뚝이탈 수트는 탈에 강인한 서민적인 삶의 느낌이 잘 나타나 있어서 그 도드라진 눈썹과 밑으로 쳐진 눈의 이미지를 칼라와 주머니의 주위 강조선으로 표현하여 캐시미어 코트로 제작하였다.

두 번째 눈꺼묵이탈의 베스트는 눈을 지그시 감은 모습에서 감은 눈의 모양과 입의 모양을 가슴과 요크라인에 표현하여 다크 브라운과 베이지의 조화를 베이지색 부분은 요크라인에서 지퍼로 떼어낼 수 있도록 하여 변화된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이는 계절에 따라 색상으로 변화를 주어 안의 블라우스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세 번째 취발이탈 수트는 술에 취해 있는 모습과 그 느낌을 보라색 수트로 제작하였는데 이마와 볼의 주름과 눈썹에 그려진 이미지를 과장 변형하여 소매와 양옆의 개더로 표현하여 몸의 유연성을 나타내었다.

네 번째 작품인 인내의 상징인 미얄할미탈의 수트는 그 고뇌로 인해서 생긴 주름과 강한 여성상을 표현하기 위해 김정색 가죽으로 패딩 처리하여 스티치를 박아서 볼 주름의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고생스러움은 소매의 니트 조직으로 나타내었다.

다섯 번째 작품인 하회탈의 수트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활짝 웃는 눈과 눈썹, 코의 이미지를 재킷의 칼라에 입체적 재단과 배색의 효과로 표현하였고 코는 허리의 패스너와 연결시켜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디자인하여 그 디자인에 맞는 소재와 바느질법을 선택하여 5벌을 제작하였다.

유니폼인 관계로 실용성과 기능성을 감안하였으며 이와 같이 탈의 조형적 특성에서 얻어진 영감을 의상디자인의 주제로 하여 시도한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창작디자인의 발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를 하면서 탈의 사진들을 많이 고찰한 결과 사진의 선명도나 상태가 가장 좋은 「한국 가면의 연구」와 「한국의 탈」에서 선택하였으며 한국 탈에 나타난 문양에서는 후일 심층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탈의 조형적 특성에서 얻어진 영감을 의상디자인의 주제로 하여 시도한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창작디자인의 발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수남, 임재해. (1988). *한국의 탈*. 서울: 행림출판사.
- 남희제. (1992). *한국탈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명식. (1957). *한국민속극 탈의 조형원리 연구*. 홍익대 산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두현. (1979). *한국의 가면극*. 서울: 일지사.
- 조동일. (1975). *韓國假面劇의美學*. 서울: 한국일보사.
- 조동일. (1986). *한국 탈놀음의 미학*. 서울: 흥성사.
- 주성희. (2003). *한국 탈의 조형미를 활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호텔 유니폼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상수. (1984). *韓國탈의 研究*. 서울: 성문각.
- 한국민속극 연구소편. (1952). *傳統舞蹈用語의 研究*. 서울: 나라.
- Edward. B. Taylor. (1871). *Primitive Culture*(2nd ed, 1913). *Kessinger Publishing*.
- Jean-Luis. Bedouin (1986). *탈의 민속학* (이강렬 역). 서울: 경서원. (원저1963 출판).